

## [교양 상식] 자동차는 왜 도로우측으로 통행하게 됐을까?

### 자동차 통행 방법의 유래

일본, 영국, 호주 등의 나라에 가보면 자동차의 핸들위치와 통행방법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 자동차들은 왼쪽에 핸들이 달려 있다. 그리고 도로의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자동차들은 오른쪽 통행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영국, 호주 등 몇몇 나라에서는 우리와 반대로 자동차의 핸들이 오른쪽에 달려 있고 이런 차들은 도로의 중앙선 왼쪽으로 달린다. 왼쪽 핸들에 오른쪽 통행이나 오른쪽 핸들에 왼쪽 통행 방법은 습관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방법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 습관을 달리하면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듯이 핸들위치가 다른 차를 처음 운전하게 되면 기어레버를 조작하는 손이 달라지게 때문에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 왜 오른쪽 통행과 왼쪽통행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통행방법의 유래는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기사들의 마상결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말을 타고 결투할 때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오른쪽으로 달려오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 말을 왼쪽으로 몰아야 했다. 그 영향을 받아 중세유럽의 마차들은 좌측통행을 하게 되었고 특히 유럽의 대국이었던 보수적인 영국인들은 그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동차들도 좌측통행을 하고 있다. 일본도 처음에는 자동차를 영국에서 수입해 탔기 때문에 영국의 습관대로 좌측통행을 하게 되었다.

그뒤 무기가 총과 대포로 바뀌어도 전투방식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전법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전쟁을 일으키면서 구시대의 전법을 깨뜨린 것이다. 즉 적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했다. 나폴레옹의 이 전술은 보수적인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진보적인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쳐 마차들까지 우측통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의 자동차 시대로 이어져 왔다. 휘발유자동차의 탄생지가 독일과 프랑스인만큼 자연스럽게 이들 두 나라의 통행법을 따르게 된 것이다.

*[출처 : 전영선-자동차 이야기]*

## 우리나라의 차량 통행방법 유래

우리나라에 최초로 통행법이 공포된 것은 1906년으로 자전거, 인력거는 좌측, 사람은 우측으로 다니도록 했다고 한다. 자동차가 처음 도입된 1903년 당시 교통수단이 주로 서양마차와 인력거 등이었는데 일정한 통행원칙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사고를 자주 당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인 1915년경에는 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동차 취체령을 공포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만드는 한편 달릴 때는 길 한가운데로 가돼 마주 오는 마차를 피할 때는 좌측으로 가도록 했다.

또 경시청에서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길 오른편에 바짝 붙어 걷게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1921년 12월1일 좌측통행을 하는 일본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며 사람, 자동차를 모두 좌측으로 다니도록 했다. 그 뒤 1946년 4월1일 미군이 다시 차를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